

10월호

Contents

< b 차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 '고산자 대동이지도' 관람 >	2
시원한 바람 맞으며 유람선 탑승을.....	4
(집단LP) '카페&베이커리 피어' 박람회 관람을 하고나서.....	6
(집단LP) 롯데일드&아쿠아리움 체험	8
개별LP부산여행	10
공공임대주택 및 정보 지식의 세계로.....	12
광복구 평화의 소녀상 권립 서명(모임)운동	14
광복센터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16
가을여행 소개	17
(장애인 이터넷) 지체장애	19
이달의 정보	20
이달의 시	22
광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 6 차 집단자립생활프로그램 '고산자 대동여지도' 관람 >

김소연



2016년 09월 17일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 영화 관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추석연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고, 6명의 참가자분이 오셔서 명단을 체크하시고 영화표를 예매하고 팝콘과 콜라를 사서 영화관람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가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참가자 분께서는 영화 '고산자, 대동여지도' 보기 전에 기대가 되어 예고편을 몇 번을 보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다른 참가자분은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셨으며, 영화관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간략하게 영화 줄거리를 말하면…….

지도가 곧 권력이자 목숨이었던 시대에 조선의 진짜 지도를 만들기 위해 두 발로 전국 팔도를 누빈 고산자 김정호분이 나옵니다. 하나뿐인 딸 '순실' 이가 어느새 열여섯 나이가 되는지도 잊은 채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에도 아랑곳 않고 오로지 지도에 몰두하고 나라가 목점한 지도를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념 하나로 대동여지도의 완성과 목판 제작에 혼신을 다하였는데 하지만 안동 김씨 문종과 대립각을 세우던 흥성대원군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를 손에 넣어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영화는 역사로 기록되지 못한 고산자 김정호의 감춰





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화 즐거리를 보면 정말 흥미진진해보이시죠!!!

영화 후기를 보기기 전에 실제 김정호란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호선생님의 호가 '고산자' 입니다. 1804~1866 조선말, 조선시대 가장 많이 지도를 제작하였고, 가장 많은 지리지를 편찬한 지리학자입니다. 그러나 김정호선생님의 역사적 기록은 모두 합쳐도 A4용지 한 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그만큼 김정호선생님이 황해도 출신이다~ 송계문 쪽 만리재 출신이다~ 등 생물연대, 본관, 신분, 고향, 주요주거지, 가계 등 어느 것도 정확하게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김정호 선생의 작품 대다수가 현재까지 전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이렇게까지 기록이 없는 것도 사실 이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족보가 발달한편이 조선에서 가계기록조차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신분이 양반이나 중인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호에 관한 여러 가지 설이 들어 있는데 영화 스포일러와 직결되기 때문에 쓰지 않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산자 대동여지도 솔직한 후기는 우리나라 지도, 지리에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한 김정호란 사람이 정말 대단하고 멋있고 또한 영화를 보면서 불쌍하단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고산자 김정호선생이 직접 다녀갔던 여러 우리나라 명소를 사진이나 영화의 직선적인 촬영기법등 영상미는 정말 괜찮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물입도 잘 안되고 무엇보다 김정호라는 위인의 일대기를 그려내는 영화에 스토리가 너무 잔잔하고 진부한 아쉬운 영화였습니다.

영화 관람을 마치고 참가자들을 모아서 단체사진을 찍고 설문지 작성을 하고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05차 영화관람 프로그램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료출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416&aid=0000193234>

시원한 바람 맞으며 유람선 탑승을…….

문지수



09월 30일 14:00 - 16:00,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유람선 타기 <잠실투어 크루즈> 일정 있는 날이다.

09월 30일 안개처럼 흐릿한 듯 구름 끼고 유난히 조금 더운 날씨다.

‘유람선 타면 시원하겠지……?’

나랑 주영경 선생님이 일찍 도착했을 거란 기대와는 달리 7차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에 참여자 중에서 먼저 오신 분들도 계셨다.

먼저 오신 참여자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며 기다리는 동안 한 두 분씩 약속장소에 오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유람선 탑승 티켓 끊기 전에 간식을 구매하였으며, 바로 유람선 탑승 티켓 끊고 유람선을 드디어 탑승하였다.

유치원 아이들의 소풍 시기라 그런지 가을소풍 나온 아이들이 유난히 많았고, 조용한 유람선 안은, 참새 떼 마냥 시끌벅적한 분위기였다.

처음 타본 유람선은 생소하면서도 미묘했고, 유람선은 잠실 한강 공원을 빙 둘러 운행하였다.

한강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수상스키처럼 타고 다니는 물위에서 타는 운동기구들도 보인다. 아이들의 웃고 떠드는 소리, 참여자들의 이야기 등이 맞물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람선은 웃음 소리를 싣고 제 갈 길을 가고 있고, 그 안에서 참여자들은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들이었다.

도란도란 웃음과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유람선의 운행은 끝나고, 아쉬운 마음과 즐거웠던 마음을 간직한 채 헤어지기 전 우리는 단체 사진을 찍으며, 그 마음을 달래보았다.



7차 집단자립생활 프로그램 <잠실투어 크루즈>

[집단ILP] ‘카페&베이커리 페어’ 박람회 관람을 하고나서…….

주영경



이번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은 10월 08일(목)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진행되는 ‘카페&베이커리 페어’ 박람회 관람으로 박람회의 목적은 커피업계 신제품 등향 파악과 베이커리 업계 신제품 홍보에 있다고 합니다.

박람회 개최 날 강북센터 식구들과 함께 방문해보았습니다. 거리가 먼 탓에 다들 서둘러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 약속된 시간보다 더 일찌감치 모이곤 했습니다. 유난히 맑고 좋은 날씨에 참여자 분들 모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참여자 분들이 다 모이고 입장권을 받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박람회 자체가 생각보다 큰 규모였으며,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는 볼거리와 먹거리로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전시장 안에서 우리 참가자분들을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따기’였으나, 관람을 하다 보니 강북센터 참가자 분들이 커피시음과 다양한 베이커리를 시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으세요~?”

“네~~~다양하게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늘 좋아하시는 커피 마음껏 즐기세요~”

대부분 참여자분들이 박람회 관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 흐뭇하기도 했습니다.

한창 관람하던 도중 박계형팀장님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도 커피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사실이었습니다.

박계형팀장님께서 매 커피부스마다 들르시며 향을 맡고 시음도 하셨습니다. (이건 비밀이지만 원



두알갱이를 그냥 씹어 드시곤 향긋히
물을 찾기도 하셨답니다.^^)

이번 박람회 관람은 평소 커피와 베이
커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 매우 유
익했을 시간으로 대부분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음번엔 다른 분
야의 박람회도 관람하고 싶다는 의견
을 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 같이
모여 박람회 관람 기념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자유롭게 귀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거
리가 먼 곳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여자분들이 와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
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06일(목) 제8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박람회 관람 기념 단체사진)

[집단 ILP]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체험

주영경



잠시 휴식시간



아쿠아리움 입장하기 전

이번 제9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은 10월 14일(금) 잠실 롯데월드에서 놀이동산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계획대로 2시 30분까지 롯데월드 시계탑 앞에 다 모인 참여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촬영한 뒤 준비한 도시락과 간식을 나눠드리고 간단한 공지사항과 주의해야 할 점을 전달한 뒤 자유롭게 롯데월드 어드벤처 내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롯데월드 내부에 들어가자 수많은 놀이기구로 인해 참여자분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각자 활동보조인분들과 함께 여기저기 관람을 하거나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참가자분들도 보였으며 다양한 놀이기구를 체험하기 딱 좋은 곳이었다. 금요일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제대로 놀이동산에 온 기분이 들었다. 놀이동산에 온 사람들 중 대부분이 10대 ~ 20대였으며, 프로그램 참가자 중 20대에 속하는 이은재군과 김소연선생님 역시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기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내내 입가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생각보다 놀이기구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짧았지만 복지카드를 제시하니 우선순위로 탑승이 가능하였고, 이 우대사항으로 생각보다는 많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이 흘러 롯데월드 어드벤처 체험을 뒤로하고 5시에 입장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에 가고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이 구간은 워낙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휠체어를 타신 참여자분들에게 한 번 더 주의사항을 드리고 함께 이동하였다. 제2롯데월드는 롯데월드와 지하통로로 이어져 따로 외부로 나가지 않아 이동하기가 수월하였으며 대부분 참여자분들께서는 제2롯데월드는 처음 방문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제2롯데월드 가는 길에 한 컷!!!)

서 만장일치 만족스러워했다. 내년에는 이러 한 건의사항과 예상치 못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

제2롯데월드에 도착 후 입장시간인 5시가 되기까지 조금 남아 다 같이 모여앉아 롯데월드 체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결과의 대부분은 참여자들이 만족하고 즐거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참여자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신체장애로 인해 놀이기구 체험에 매우 제한적이었던 점과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다는 점 건의사항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대로 모든 참여자들이 도시락과 간식에 대해

아쿠아리움에 입장하기 전 마지막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당일 롯데월드 이용권으로 할인받아 원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롯데월드 놀이기구 체험과는 다르게 모든 분들이 직접 참여하고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었으며, 롯데월드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집단ILP를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다양하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도 여러 부분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다.



제9차 집단자립생활기술훈련(ILP)은 10월 14일(금) 잠실 롯데월드 단체사진

[개별ILP] 부산 무장애 여행

박남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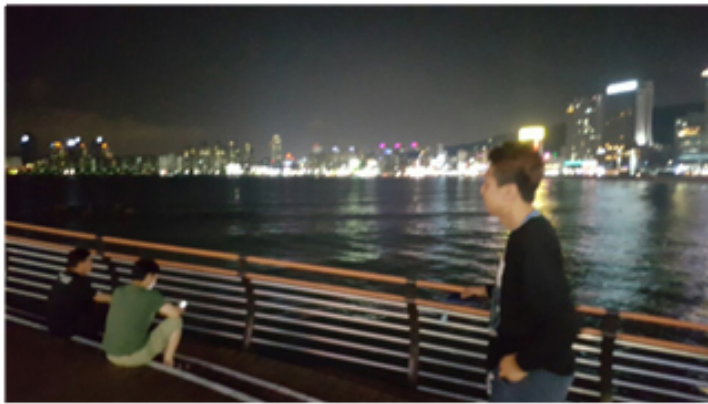
준비영화 ‘부산행’ 이 대 히트를 치고 그 여파로 부산여행객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라는 코디의 밀거나 맡거나 식 정보제공도 한 몫을 했겠지만 부산을 한 번도 가보지 못 한 우리 입주자들이 부산 여행에 매우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부산 출신인 코디는 그저 흐뭇할 따름이었다.

애초에 우리 입주자 김 아저씨의 부산체험기에 초점을 맞추고 함께 계획했던 개별ILP 부산 여행이라서 부산 지역의 장애인택시 ‘두리발’ 이용 및 숙소와 체험 장소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갔던 터라 진행이 수월했고 하늘도 우리의 여행을 도와주셨는지 화창하고 선선한 날씨에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즐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9월 23일 금요일 아침. 강북센터의 자립생활주택인 벽산아파트에서는 전날 밤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 준비를 마친 입주자들은 들뜬 표정으로 집을 나섰다. 전동휠체어 이용자인 김 아저씨가 부른 장애인택시를 타고 이런저런 수다를 신나게 떨다가 서울역에 도착한 일행은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역 안의 냉면집을 들어갔다. 순전히 냉면귀신인 신규입주자 정귀음(가명)을 위한 배려였다.

맛있게 냉면을 흡입한 후 생전 처음으로 KTX를 탄 입주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창밖을 보며 탄성을 지르느라 바빴다. 여담이지만, 활동보조인 선생님의 말로는 휠체어 이용자인 김 아저씨는 KTX에 탑승할 때 휠체어장애인을 배려한 장애인리프트 서비스에 감동의 탄성을 크게 내지르셨다고 한다. 그리고 3시간여 만에 부산역에 도착. 부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숙소를 예약하였기에 일행은 도보로 이동하였다.





도보로 10분... 숙소 홈페이지 상에는 분명 도보로 10분이라고 명확하게 적혀있었지만.. 한 25분쯤 걸었을까.. 지하철역 한 정거장을 훌쩍 지난 거리에서 겨우 발견한 숙소에 부랴부랴 짐을 풀 수 있었다.

KTX를 타고 금방 도착한 부산이지만 그래도 여행은 여행인지라 여독을 풀

겸 각자의 숙소에서 자유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가지고 저녁식사를 위해 모인 우리는 만장일치로 “ 부산에 왔으니 회를 먹자! ” 는 결론에 이르렀고 부산출신의 코디는 맛있고 깔끔하고 좋은 곳(?)으로 일행을 안내해야 한다는 강한 압력을 받았다.

30년 가까이 부산에서 살아온 터라 자신이 넘쳤던 코디는 휠체어이용자 때문에 좌식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실수를 범했지만 나를 신선도★★★★★, 맛★★★★★, 친절★★★★ 급의 민락회타운으로 일행을 안내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이번 부산 여행은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알찬 체험으로 멋진 추억을 많이 남긴 것 같다. 부산 아쿠아리움, 금련산 봉수대에 올라 부산 전경관람 등의 체험들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부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 기사님들의 따뜻함과 친절이었다. 특히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 역으로 향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해 주신 기사님은 부산을 처음으로 방문하는 입주자들을 위해 광안대교에서부터 영도대교까지 관광차원에서 일부러 들어가며 친절히 설명도 곁들여 주셨고, 영도다리를 통과할 때 700원의 통행료를 본인이 지불해 주시는 선의를 베풀어 모두를 감동의 도가니로 밀어 넣으셨다.

가칠한 왕자님 컨셉의 신규입주자 정귀음(가명)은 부산여행으로 신난 듯 밝은 표정과는 달리 말로는 “ 부산여행 시시 했어요 ”

라고 했지만 김아저씨와 모두가 이번 여행으로 인해서 서울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부산 지역의 특색을 느끼며 많은 추억을 쌓았다. 내년에도 이런 여행을 계획하여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으면 한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공공임대주택 및 정보 지식의 세계로.....

문지수



10월 17일 14:00 - 17:00, 자립 생활교육 프로그램 <금전관리교육> 일정 있는 날이다.

금전관리교육으로 이번 강사로 섭외되신 최창우 강사님께서 금전관리교육을 진행하셨다.

최창우 강사님은 노원주거복지센터 전 前 사무국장님이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 위원장님이시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로는 취약계층 매입임대·영구임대·다가구 매입 임대·기존주택 전세임대·재개발임대·국민임대·50년 공공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등 있고, 취약계층 매입임대는 비주택 거주자 대상이고 영구 임대는 수급권자·탈북자·국가 유공자 대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한부모 가정, 수급권자 대상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한부모 가정, 수급권자 대상이다. 재개발 임대는 소득 50% (3인 기준으로는 240만원! 이라고 한다.), 국민임대는 소득 50% 이하 또는 70% 이하이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을 해야 하고 장기안심주택은 소득 70% 이하이어야 한다.

“여러분은 ‘집’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나요?”

그러자 참여자들이 각각 생각하는 것들을 말해보았다.

어떤 이는 ‘가족’이 생각난다고 하였고 다른 이는 자신만의 집을 얻을 수 있는 걸 ‘꿈’ 같다고 하였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같은 질문이지만 직접 참여자들이 말해서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어서 참여자들에게 좋은 것 같다.

기초생활 4대 급여로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이 4가지가 있는데, 생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이라고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 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 가입액 범위로는 월 2만원~60만원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

청약 저축을 필히 강요를 하시며 강약이 마무리가 되었고 참여자들도 좋은 강약에 호의적이며 만족하였다.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서명(모금)운동

전난희



이번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서명(모금)운동'은 수유역 3번 출구 앞에서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열렸다.

강북센터 사무실이 있는 가든타워빌딩 바로 앞에서 진행하였으므로 직원들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퇴근 후 저녁을 먹고

'강북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서명(모금)운동'에 참여하였고, 보통 미아역 근처에서 진행할 때 보다 모금에 동참하는 시민들이 많아서 뿌듯하기도 하였다.

평화의 소녀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한 예술 조형물이다.

상의 모양은 의자에 앉아있는 모양과 서있는 모양이 대표적이다. 1992년 수요시위가 시작되고 20년 뒤인 2011년 12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일본대사관 앞에서 거리의 투쟁을 이어온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열원하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계획하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 1000회째인 2011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 과정 초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묘비나 비석과 같은 형태를 구상하였으나, 당시 종로구청장 김영준은 비석 대신 소녀의 모습을 한 예술작품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제공[1]하였다. 이는 비석에 대한 허가는 불가하나,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



면 법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었고, 건축가로 짧은 미적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 이 아이디어를 통해 제작된 '평화비'는 김은성, 김서경 부부작가가 공동 작업한 작품으로, 높이 130cm에 치마자고리를 입고, 짧은 단발머리와 손을 움켜쥔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평화비 옆에는 작은 의자가 놓여져 있어 소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되새기는 체험공간이 마련됐다. 표지석에는 위안부 피해자인 김원옥 할머니가 쓴 평화비 문구와 함께 1992년부터 이 곳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의 천 번째를 맞이할에 그 숭고한 정신과 역사를 잇고자 이 평화비를 세운다고 적혔다.[2] 허나 이곳에 '구상 김영중'이라고 적지 않은 것은 당시엔 구청장으로서 직접적 개입을 나서서 밝히기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타결하였다. 여기에는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다. 이에 소녀상 철거를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등의 비난이 일자, 정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 자체를 부박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은 채 연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13년 3월 8일 미국 뉴저지주 해켄색에 있는 카운티 법원 앞의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희생된 위안부를 추모하는 기림비가 세워졌다. 기림비를 만든 주체는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정부다. 미국에서 한인사회가 주도한 기존 기림비와 달리 미국의 지방정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버겐카운티 정부는 기림비 등판에 "2차 대전 당시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노예'(sexual slavery)로 강요당한 한국과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출신의 수십만 여성과 소녀들을 추모하며"라는 글을 새겼다.



자료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D%8F%89%ED%99%94%EC%9D%98_%EC%86%8C%EB%85%80%EC%83%81

강북센터 새로운 식구를 소개합니다!



주영경

안녕하세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식구분들!

저는 2016년 9월 26일부터 첫 출근하게 된 신입사원 주영경이라고 합니다!

(저 옆에 사진과 달라서 못 알아보시는 분도 계실거라 예상합니다...)

이번 자기소개를 통해 식구분들에게 저에 대하여 간단하게나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행정학을 전공하였으며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여 졸업과 동시에 아동복지 시설에 3년 1개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더 큰 곳으로 발을 디고자 이렇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입사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강북센터는 저에게 2번째 직장으로 다가왔습니다.

‘산이 높으면 그 골도 깊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과 같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되더라도 처음 시작은 그 어느 누구라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애인분야를 정식으로 접해본 적이 없어 부족한 부분도 많겠지만, 필요한 것은 제가 가진 역량으로 부족한 것은 성실함으로 채워나가는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를 강북센터의 식구로 뽑아주신 많은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여행 소개

전난희

제주 서귀포, 그리고 울릉도... 미처 못 가본 우리 댁으로 가을 여행을



유난히도 무더웠던 2016년의 여름이 저물어 간다. 좀처럼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열대야도 이제 곧 풀이 죽을 것이다. 가을이 다가왔다. 여행을 떠나기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번 가을, 아직 다 찾아보지 못한 국내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어떨까. 가을에 떠나기 좋은 국내 여행지 3곳을 소개한다.

제주와 서귀포를 동시에

제주 여행은 항공권과 호텔, 렌터카를 예약해서 자유롭게 여행하는 ‘에어카텔’이 대세다. 흔히들 항공권과 호텔, 렌터카를 따로 직접 예약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여행사는 몇몇 날짜를 지정해 호텔과 항공권, 렌터카를 대량으로 구입해 판매하는 ‘공동구매’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

제주여행은 숙소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행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 대표적이 곳이 제주시와 서귀포 두 곳이다. 제주시는 공항과 가깝고 호텔 수가 많아 선택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서귀포에 비해 자연환경이나 남쪽 관광지로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직판여행사 참좋은여행(대표 이상호)은 제주시와 서귀포에서 각각 1박씩 할 수 있는 이색 에어카텔 상품 '탐라가 탐한 공간 제주+서귀포'를 만들어 내놓았다.

제주시에서는 탐동 해안에 자리한 특급 오션스위츠호텔을 이용하며, 서귀포에서는 앞 쪽으로는 바다 전망과 뒤로는 한라산이 바라다보이는 오션팰리스호텔에서 묵는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오션스위츠호텔은 전형적인 가족 친화형 호텔이다. 4인 가족이 묵을 수 있는 패밀리룸을 갖추고 있으며, 탐동 해안에 있기 때문에 놀거리와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것이 장점.

서귀포 이종섭 거리에 있는 오션팰리스호텔은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으로 객실 전체를 마감한 럭셔리 레지던스 스타일이다. 흰색과 붉은색으로 객실을 꾸며 신혼부부가 묵어도 좋을 만큼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두 호텔 모두 제주에서는 빠지지 않는 특급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면서도 값은 일반 관광호텔을 이용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

4인 1실 가족여행을 기준으로 9월 중 가장 저렴한 날인 9월 19일과 20일 출발 상품은 1인당 21만 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21만 원 안에는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과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호텔 2박 숙박비, 뉴 K5 또는 LF 쏘나타급 렌터카 54시간 비용이 모두 들어있다. 믿기 힘든 가격이라 추가 요금은 없을까 걱정되지만 가이드가 없는 자유여행이므로 추가 요금을 낼 이유가 없다. 꼭 내야만 하는 돈이라면 렌터카를 빌릴 때 내는 자차보험료 정도. 예약 및 문의는 (02)2188-4086, 참좋은여행 제주팀으로 하면 된다.

울릉도는 왜 그리 가기 힘들까

울릉도는 제주도만큼이나 매력적인 섬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일반인이 가려고 마음먹기 쉽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항공편이 수시로 있는 제주도와는 달리 울릉도로 가는 길은 오로지 뱃길이 전부이기 때문. 묵호와 강릉, 후포와 포항 등 4군데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뜨는데 울릉도 첫 여행을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항구가 편한지, 어디에 자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개인이 배편을 따로 예약한 후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한 울릉도 내의 숙소를 따로 예약하다가 여행 예산의 총액이 가까운 외국 한 번 다녀올 만큼 올라가기도 한다.

울릉도에서 다녀올 수 있는 독도 관광이나, 전망대 케이블카 탑승, 울릉도 주변을 도는 유람선과 바로 옆 죽도 관광 역시 초보자가 예약해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마련.

여행사에서 만든 울릉도 패키지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이런 걱정을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 보통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꺼리는 이유가 강제 쇼핑이나 바가지 옵션 때문인데 울릉도에는 여행객만을 위한 쇼핑센터가 없고 옵션도 거의 실비로 진행되기 때문에 굳이 여행사를 통한 울릉도 여행을 피할 필요는 없다.

자료·이미지 출처 - <http://travel.donga.com/3/all/20160822/79899729/1>

[장애인 에티켓] 지체장애



○ 교통수단

장애인이 행사나 모임에 오갈 때 교통수단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동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편의만 제공이 되면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떤 장애인들은 쉽게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휠체어 사용자들은 휠체어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수동휠체어는 차량에 실 수 있도록 접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나 휠체어 형태에 따라 휠체어를 차 뒤 트렁크나 뒷좌석에 싣거나 차밖에 특수 장치를 싣습니다.

보통 휠체어 사용자들은 평상시에는 큰 휠체어나 모터가 장착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자동차로 여행을 할 때는 작은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휠체어 사용자 중에는 남의 도움 없이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 실을 수 있을 도움 때는 먼저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장애인에게 알아 본 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애인들에게 적용되는 최선의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이 차에 타는 것을 도움 때는 머리를 흔들리거나 옷이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도 장애인의 용모를 흠트려 놓았을 때는 용모를 단정하게 고치는 것까지도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장차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램프나 리프트를 이용해 오르내릴 수 있는 차는 휠체어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특수 장치가 되어있는 차를 이용하면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빠르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차가 있는 장애인들은 행사나 모임에 오고 갈 때 자기 차를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는 장애인용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차가 없는 장애인들에게는 모임이나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교통편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출처- http://disability.seoul.go.kr/lifeinfo/etiquette_view.jsp?Depth=4611&idx=1&no=11#con

이미지 출처- <http://www.irepublic.kr/>

이달의 정보

2016년 장애가정 청소년 미래의 꿈 지원사업 선정 및 대상자 모집

경기사회 복지공동 모금 회에서는 지난 6월 소득 양극화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이러한 악순환을 막고자 성장 잠재력이 있는 저소득 학생들을 발굴·육성하여 분야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인재육성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지난 19일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는 '2016년 장애가정 청소년 미래의 꿈 지원사업' 으로 선정되었다. 2016년 장애가정 청소년 미래의 꿈 지원사업은 스스로 꿈을 이루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가정 청소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맞춤형 교육비, 재능과 끼 훈련 레슨비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8월 1차년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금년 2차 년도 사업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1년간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또는 차상위 150% 가정의 장애가정 청소년(14세~24세)으로 본인 혹은 부모, 형제자매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꿈의 구체성, 꿈을 위한 노력, 지원 필요성,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2016년 9월 26일 ~ 10월 7일(2주간)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홈페이지(www.gsrpd.org)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mentoring@kgsrd.org)로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노성만 회장은 재능과 꿈이 있지만 장애나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꿈 실현과 홀로서기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031-203-1885 자료제공= 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기사출처-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121>

서울역사 박물관 주말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서울역사 박물관은 매월 넷째 주 토요일 박물관 1층 강당 야주개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토요 배리어프리 영화관' 을 운영하고 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영화란 기존 일반영화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글 자막을 넣어 보여줌으로써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어르신, 다문화 가족 등 모두가 다함께 영화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영화다.

오는 24일 오후 2시에는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 이 상영된다. '소중한 날의 꿈' 은 2010년 부산 국제영화제 최고의 화제작이자 한국 애니메이션의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우수작으로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주인공 이량이 수민과 철수를 만나면서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으로 관객들을 아련한 첫사랑의 추억속으로 안내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오후 1시 30분부터 선착순 입장 후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다. 다음달 10월에는 베니스영화제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 '필로미나

의 기적' 을 상영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seum.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승인호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관람을 통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기사출처-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860>

시민들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컨퍼런스' 개최

서울시, 청년층에게 긍정적 힘주고자 기획... 위로와 사회적 지지 보낸다.

서울시가 9월 8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2016 정신건강컨퍼런스 따뜻한 말 한마디' (이하 '2016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개최한다.

서울시는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관련, 일방적이고 계몽적인 홍보가 아닌 서울시민과 상호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별히 경기 침체와 실업난, 급변하는 사회현상 등으로 스트레스와 불안이 가중되는 청년층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고자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릴레이 강연과 작은 공연이 어우러지는 '따뜻한 말 한마디' 는 작년에도 강연자들과 청중 간 높은 교감을 이끌어내며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 본 컨퍼런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라는 이름처럼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며 사는 강연자들이 인생의 선배나 동료로서 서울시민들에게 위로와 사회적 지지를 보내는 목적으로 마련된다.

컨퍼런스에서는 모두 세 명의 강연자를 만날 수 있으며, 현재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정신건강의 관리 향상을 위해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22대 서울시정신건강지킴이 서경석 기아대책 부회장, 설국열차·명량·관상·끝까지 간다. 등 한국영화의 흥행 대작들에서 영화 편집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며 대중상, 청룡상 등을 수상한 김창주 편집감독,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로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던 김광진 (전)국회의원·함께어는미래 대표가 각각 '아름다운 당신에게' 라는 테마로 자신들의 삶에서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손지훈 센터장(정신과전문)은 “컨퍼런스를 찾은 시민들에게 위로와 도전, 희망을 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뮤지컬 '베르테르' 에서 기쁨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알베르트' 를 열연한 이상현 배우의 공연까지 감상할 수 있는 '2016 따뜻한 말 한마디' 는 이달 16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은 블루터치 홈페이지 '교육 및 행사 신청' 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건강기획팀(02-3444-9934)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8329>

서서히 죽어 가는 사람

마샤 메데이로스

승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말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 가는 사람이다

열정을 피하는 사람
흑백의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
눈을 방작이게 하고
하품을 미소로 바꾸고
심수와 슬픔 앞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밝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 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과 사항에 행복하지 않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 사람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상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인 조언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 가는 사람이다

- 중간생략 -

우리, 서서히 죽는 죽음을 경계하자
살아 있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할 수 있는 기억하면서
오직 불타는 인내심만이
멋진 행복을 얻게 할 것이다

‘2016년 김치 담그기 체험’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김치 담그기’ 행사는 김장김치를 담아 지역사회와 나누어 먹으며 지역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사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내용

- 사업명 : 김치 담그기 체험
- 일 시 : 2016년 11월 18일(금) 09:00 ~ 18:00
- 장 소 : 번1동 주민자치센터
- 대 상 : 강북센터 회원 및 이용자 및 지역주민
- 인 원 : 90명
- 신청방법 :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www.kbcil.co.kr에서
관련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hanmail.net)
이나 팩스 0303) 0799 - 1758로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장애인자립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Tel : 02) 908-7776

※ 위 일정은 상시 일정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